

1. 2003년9.7 국가직7급 국어

【문 1】 문학은 물론이고 일상 언어에도 환유와 은유가 사용된다. 밑줄 친 표현이 은유인 것은?

- ① 할아버지가 떠나시자 온 동네가 슬퍼 울었다.
- ② 어제 동생은 혼자서 맥주 열 병을 마셨다.
- ③ 백악관이 그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④ 좋은 이론은 쉬우면서 씹을수록 맛이 난다.

【문 2】 다음 글의 서사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랫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훌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 ① 간결하고 화려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 ②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대상의 특성이 요약되고 있다.
- ③ 과거의 일화를 떠올리며 현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④ 산책이라는 배회의 형식을 통해서 관찰한 내용이 서술된다.

【문 3】 다음 글에 나타난 진술의 특징과 유사한 것은?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없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 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 ①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이다.
- ② 독서는 인생의 보약이다.
- ③ 산은 푸르고, 하늘은 높다.
- ④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문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無視)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自己虐待)에서 나오는 편견(偏見)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提起)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國粹主義)나 배타주의(排他主義)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旺盛)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문화(先進文化) 섭취(攝取)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創造)하는 일이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히 외래 문화(外來文化)를 모방(模倣)하는 것도 아님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 낼 수가 있는 것이다.

- ① 인습을 타파
- ② 민족 정신을 계승
- ③ 과거를 묵수
- ④ 문화재를 발굴 창조

【문 5】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새벽 기운이 퍽 서늘하다. 다른 날 새벽보다 다른 것 같다. 톨스토이의 일기를 읽었다. 그는 철인 생활, 문인 생활을 했다. 그의 말에 “복잡한 지식은 허위의 징조다. 진실은 항상 단순한 것이다.”라고 써 있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복잡한 지식을 가진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사람 가운데 부지런히, 꾸준히 애쓰고 힘쓰는 이다.

- ① 박식한 지식
- ② 온후한 기질
- ③ 예리한 관찰
- ④ 우아한 문장

【문 6】 다음 글에서 보여주는 생각과 다른 것은?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눕히니, 그 코야말로 천하의 무적이다. 그러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 별 수 없이 하늘을 쳐다보며 서있는 수밖에 없으니, 이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아까 설자들의 이른바 그 이치가 아닐 것이다.

- ① 사물의 존재 의미를 균등하게 파악해야 한다.
- ② 사물은 각기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③ 사물의 의미는 모두 ‘제 눈의 안경’과도 같은 것이다.
- ④ 사물의 어느 특정 부분만을 과장·왜곡해서는 안 된다.

【문 7】 다음 글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청사진으로 바람직한 것은?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히 추구하는 목적은 돈과 쾌락이며, 한국과 같이 관존 민비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외면적 가치에 속하는 권력과 지위가 여기에 추가된다. 외면적 가치를 내면적 가치보다도 선호하는 가치 풍토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외면적 가치의 실현을 개인의 최고선(最高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외면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협동이 이루어지기 어렵우므로, 외면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 ① 개인들의 삶의 목표에 일차적 중점을 둔다.
- ②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③ 물질적 풍요를 토대로 개인들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 ④ 국가나 사회전체의 목적을 먼저 정하고, 개인들은 전체의 목적 실현에 봉사하도록 한다.

【문 8】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는 그 동안 물질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으며, 20세기의 과학 기술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물질문명의 발달에만 그 목표를 두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물질문명의 발달에도 기여한 바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 ①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역시 과학 기술자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과학 기술자들이 야기한 환경 문제 때문에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 ③ 이제는 물질 문명의 발달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④ 과학 기술자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적다.

[문 9] 다음 문장들을 논리에 따라 배열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려 한다. 가장 잘 배열된 것은?

- A :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것이다.
 B :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죽여 없애더라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도 뛰어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C : 그를 놀라지르기 위하여,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D : 인간은 한 줄기 같대다.
 E :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임을 알고 있으나, 우주는 그런 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F :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같대다.
 G : 한 번 내뿜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H :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존엄은 우리들의 사고(思考) 속에 있는 것이다.

- ① D-A-F-C-G-B-E-H ② D-C-G-B-E-H-A-F
- ③ D-F-A-B-G-C-E-H ④ D-F-H-C-G-A-E-B

[문 10] 다음 문장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면?

- A. 피로, 만성피로, 만성 피로 증후군, 우울증 등은 대단히 흔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병인데 접하지 않으면 하는 이름들이다.
 B.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운동이다. 운동은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적절한 운동은 심폐기능을 좋게 한다. 또한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나, 일단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점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C.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와 끊임없는 스트레스 및 빈번한 술자리로 시달리고 있다. 살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삶에 재미를 주는 일들보다 훨씬 많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건강한 삶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여건이 지속되면 만성피로 또는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
 D.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자신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의 한계를 알고 육심내지 않고 그 한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 ① A-C-D-B ② A-D-C-B
 ③ B-D-C-A ④ C-A-D-B

[문 11] 다음은 노랫말의 일부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벗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실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 ②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 ③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날으면 뒷동산에 동백꽃도 곱게 피었네.
- ④ 설레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이야기

[문 12] 다음 단어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르게 쓴 것만으로 둑은 것은?

- 해운대 한라산 금강

① ② ③ ④

- ① Haundae Harrasan Geumgang
- ② Haeundae Harrasan Keumgang
- ③ Haeundae Hallasan Geumgang
- ④ Hauntae Hallasan Keumkang

【문 13】 다음 글과 관계 깊은 국문학 장르의 특성에 속하는 것은?

화설 도선국 세종도 시절의 혼 직상이 이시니 성은 홍이오 명은 뵙라. 딱딱 명문거족으로 쇼년 등
과호여 벼슬이 니죠관서의 니르미 물망이 둑야의 웃듬이오 충효겸비 호기로 일홈이 일국의 진동하
더라.

- ① 필연성 ② 교훈성
③ 사실성 ④ 현실성

【문 1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 성어는?

여보시오 본관 사또, 늙은 기생의 말이 _____지 무어요. 장수들이 많아서 군령이 서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 아니오?

- ① 易地思之 ② 吳越同舟
③ 言則是也 ④ 朝三暮四

【문 15】 다음 글에서 밑줄친 부분이 뜻하는 것은?

이 충무공(李忠武公)은 서울에서 나고 시골에서도 자랐으나, 저기 보이는 방화산(芳華山) 밑 아산(牙山) 뱀밭에
공(公)의 古宅이 전하며, 은행나무 아래 활터 말마당은 어제 일같이 일러 내려온다. 三千里 어느 구석이 이 한
분 심혈(心血)의 유흔(遺痕)이 아니리요만, 이 온천(溫泉) 부근은 공의 고향의 문호(門戶)일 뿐 아니라, 남쪽 길이
여기로 거치게 되어, 임진(壬辰) 전 4년 선조 기축(己丑) 2월에 이 앞으로 전라도를 간 것이 장차 닥쳐올 대난
(大難)을 막아 낼 그 결음이었다. 처음은 관군(官軍)이다가 조방장(助防將)으로, 정읍(井邑) 현감(縣監)으로, 이내
전라도에 있다가 신묘년(辛卯年)에 좌수사(左水使)가 되었다. 이때에 누가 난리 걱정이나 하였으랴! 공은 홀로 장
래를 헤아려서 창의(創意)로 거북선을 만들고 천지현황(天地玄黃)등의 자호(字號)를 가진 대포와 승자장총(勝字長
銃)과 그 밖에 갖가지 맹렬한 화전(火箭)들을 만들어서 비밀히 여러 번 시험을 하고, 바다 목을 건너지르는 철쇄를
치고 망대(望臺)를 쌓았다

- ① 사무치는 원한 ② 꾀 훌린 싸움터
③ 깃든 정성 ④ 막대한 손실

【문 16】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알맞은 것은?

- ① 언니는 이미 다 알면서도 동생의 얘기에 못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② 밤이 깊자 거리에는 오가는 이들의 발길도 끊겨 나우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③ 덕행이며 범절이 놀라운 가운데 글 공부는 더욱 도저하여 절세의 비범함을 드러냈다.
④ 대장장이는 이글이글 타는 참나무 숯불에 쇠를 벼리고 힘찬 망치질로 날을 갈고 다듬었다.

【문 17】 다음 중에서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자신의 살아 계신 부모를 가리켜 말할 때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라고 해야 옳다.
② 남편의 누이동생은 아이들에 기대어 ‘고모’라고 불러도 좋다.
③ 사장 앞에서 과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사장님, 이 과장은 은행에 갔습니다.”처럼 낮추어
말해야 한다.
④ 부모 앞에서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에는 ‘집사람’이라고 한다.

【문 18】 한자의 음과 뜻이 바르게 된 것은?

- ① 止揚(지향) : 현재보다 높은 곳으로 진보
② 遲速(지속) : 끊이지 않고 오래 계속됨
③ 遊說(유세) : 각 처로 다니며 자기 의견을 개진

④ 演繹(연역) : 특수로부터 보편을 이끌어 냄

【문 19】 관용구의 뜻풀이로 옮지 않은 것은? (2003년)

- ① 대추나무 방망이 - 모질고 단단하게 생긴 사람
- ② 소 죽은 귀신 - 행동이 매우 느리고 느긋함.
- ③ 물 찬 제비 - 물매가 매우 깔끔하게 좋은 사람
- ④ 찬 물에 돌 - 지조가 맑고 굳센

【문 2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로 옮은 것은?

知者는 樂水하고 仁者는 樂山하니 知者는 ⑦ 하고 仁者는 ⑧ 하며 知者는 ⑨ 하고 仁者는 ⑩ 아니라.

⑦ ⑧ ⑨ ⑩

⑦ ⑧ ⑨ ⑩

- ① 動 靜 樂 壽
- ② 靜 動 壽 樂
- ③ 靜 動 樂 壽
- ④ 壽 樂 靜 動

<정답>

1	2	3	4	5	6	7	8	9	10
4	4	4	3	2	3	1	1	1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3	2	3	3	3	1	3	2	1